



스위스 재보험의 시그마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전세계 보험시장은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재개하여 2.4%의 보험료 성장을 달성하였다.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Daniel Staib, Zurich
Telephone +41 43 285 8136

Thomas Holzheu, Armonk
Telephone +1 914 828 6502

Mahesh Puttaiah, Bangalore
Telephone +91 80 4900 2127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 201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3%의 성장에 머무른 반면, 손해보험시장 2.6%의 수입보험료 성장세 기록. 전체적인 보험료 규모의 증가는 주로 서유럽, 중국 및 인도 시장의 성장에 기인.
- 단기적으로 수입보험료 규모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손해보험 효율의 단계적 인상, 보다 광범위하고 깊이있게 이루어질 전망. 생명보험부문에서는 중국과 인도시장이 2013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유로존의 경기침체는 그 지역 보험수요의 저해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전망.
- 아시아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할 것. 인구패턴 추정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은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다음 핵심 성장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

2013년 6월 26일, 취리히 — 스위스 재보험이 최근 발표한 시그마(sigma)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수입보험료는 2012년 2.4%¹ 증가하여 전체 시장규모는 실질가치 기준 4조 6천 1백 3십억 달러에 달하였다. 생명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1년의 시장위축에서 일부 회복되어 2.3% 성장하였는데 이는 주로 신흥시장의 성장과 미국 및 선진아시아 시장의 탄탄한 수요에 주로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보험시장에서는 신흥시장의 계속된 경제 성장과, 일부 선진 시장에서 선별적인 보험료 상승에 힘입어 수입보험료 규모가 2.6% 성장하였다. 생명보험사업의 수익성은 계속 주춤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손해보험사업의 인수실적은 견조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 환경은 투자분야에 있어 저조한 수익률을 낳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계기준상 보고된 회계자본 및 보험금 지급능력 수준의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왔다.

¹ 모든 성장률을 실질가치 기준으로 측정되었음. 예) 인플레이션을 반영(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에 기초).

전세계 생명보험료 2.3% 성장

세계 생명보험 시장은 2011 년 3.3%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12 년에는 2.6% 성장, 전체 수입보험료 2 조 6 천 2 백 1 십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보험료 규모가 성장하고 있긴 하나, 아직까지는 금융위기 이전의 평균 성장률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신흥시장에서 4.9% 성장하였는데, 이는 2011 년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규제변경의 영향으로 대폭 하락하였던 인도와 중국의 시장규모가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진 시장의 성장률은 1.8%(2011 년 3%)을 보였는데 이는 서유럽 시장이 꾸준히 축소되고 있는 와중에도 선진 아시아 시장과 미국시장에서 양호한 성과가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2012 년, 손해보험시장 수입보험료 성장세 회복

2012 년 손해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전년대비 2.6% 성장(2011 년 1.9%)하여, 1 조 9 천 9 백 2 십억 달러에 규모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아직 금융위기 이전의 평균 성장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흥시장에서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8.6% 증가(2011 년 8.1%)하였다. 선진 시장에서는 2008 년의 시장규모 감소 이후 4 개년도 연속 시장규모가 성장하여 2012 년에는 전년대비 1.5% 성장(2011 년 0.9%)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공동 저자 다니엘 슈타이브(Daniel Staib)는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의 성장세가 잘 유지되어 왔으며,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세는 신흥시장의 리스크 익스포처의 지속적 증가 그리고 특히 아시아 시장을 비롯한 일부 선진 시장에서 선별적인 보험료 인상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슈타이브는 “수익성 측면에 있어, 역사적인 저금리 상황은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생명보험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산업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증가하고 있는 보험료 수입과 더불어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제한적이며 그에 따른 적립금의 환입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저금리의 영향으로 회계상 현행 자본 수준이 다소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산업 내 자본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전망: 보험시장, 적정속도 유지한 채 계속 성장 전망

이 연구의 공저자 중 마헤시 푸타이하(Mahesh Puttaiah)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성장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새로운 규제환경에 적응한 중국과 인도의 보험사들의 성장세는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서유럽 시장의 부진은 선진국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성장의 저해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분야에 있어서는 신흥 시장의 강한 경제 성장과 선진국 시장의 선별적인 보험료 인상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추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장률 자체는 시장 전반에 걸친 담보력의 초과 공급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장기 추세: 아시아 시장으로의 중심 이동 계속될 전망.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잠재력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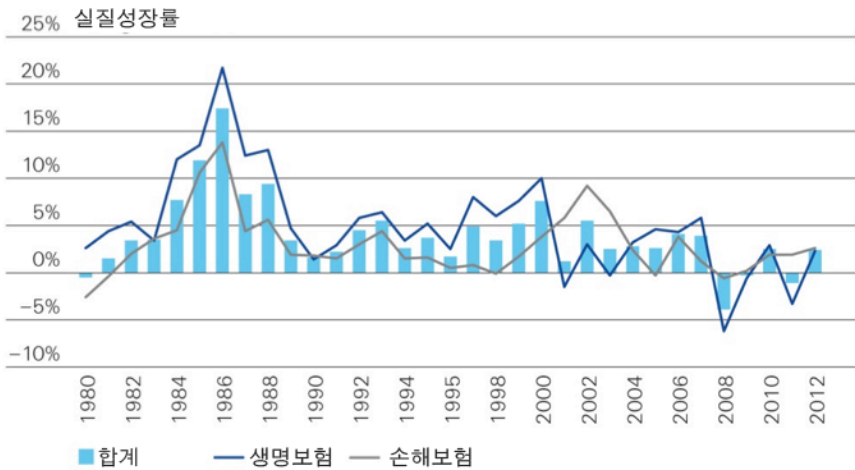
신흥시장의 경제성장과 보험 침투율의 증가는 계속되어 향후 10년간 전체 보험시장에서 신흥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흥시장의 고령화 추세는 생명보험 상품의 수요증가를 가져올 요인으로 분석되며, 도시화, 중산층의 확대 및 경제적 부의 증가는 손해보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스위스 재보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커트 칼(Kurt Karl)은 "우리는 세계 경제와 보험시장에서 신흥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과거 20년 동안 목격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소한 향후 10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패턴을 볼 때 2026년에 이르게 되면 전세계 인구 중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5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로 중국 개발의 영향 때문으로 중국에서는 2018년부터 생산가능 연령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아프리카가 전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5%에서 약 2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이유로 아프리카는 향후 15년 내 전세계 보험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이 시그마 보고서는 2012년 전세계 보험시장의 성과를 분석한 첫 번째 종합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 147개 보험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세계 보험시장 수입보험료의 99.2%를 차지하는 79개 시장의 데이터 혹은 추정치를 활용한 것이다.

1980년 이후 수입보험료 성장



출처 : 스위스 재보험 경제리서치 & 컨설팅(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주요 보험시장의 2012년 성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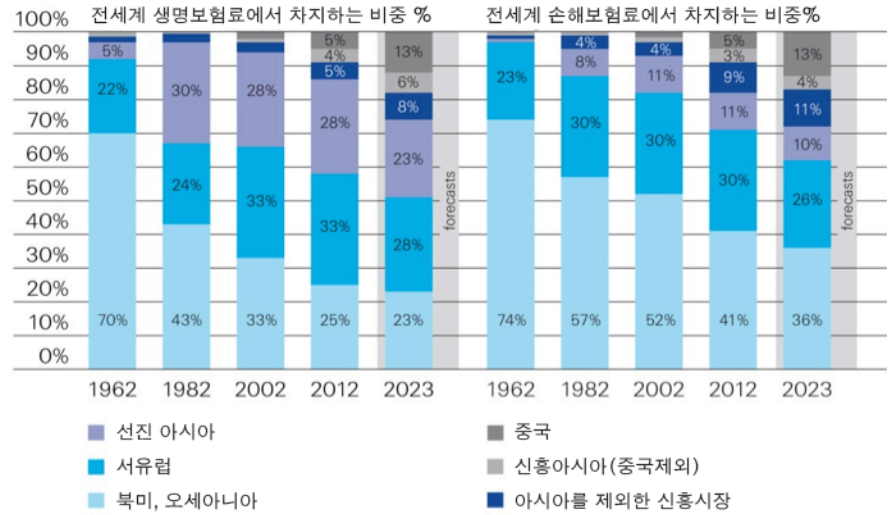
2012년 보험료 규모기준 순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총액		2012 보험밀도 (USD)	보험침투율 2012	
	USD 십억	2011년 대비 변동*	USD 십억	2011년 대비 변동*	USD 십억 2012	2011년 대비 변동*			
선진시장	2242	1.8%	1648	1.5%	3890	1.7%	3677	8.6%	
미국	1	568	2.3%	703	1.6%	1271	1.9%	4047	8.2%
일본	2	524	9.2%	130	3.0%	654	7.9%	5167	11.4%
영국	3	206	-3.0%	106	-0.3%	311	-2.1%	4350	11.3%
프랑스	5	149	-9.6%	93	2.0%	242	-5.5%	3544	8.9%
독일	6	106	-1.1%	125	1.6%	232	0.3%	2805	6.7%
이탈리아	7	93	-6.6%	51	-3.9%	144	-5.7%	2222	6.7%
홍콩	22	29	8.6%	4	8.2%	33	8.5%	4544	12.4%
신흥시장	379	4.9%	344	8.6%	723	6.8%	120	2.7%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		72	16.8%	97	7.8%	169	11.7%	282	3.0%
브라질	12	45	21.5%	37	9.6%	82	15.8%	414	3.7%
멕시코	27	11	9.5%	13	4.7%	24	6.8%	206	2.0%
중앙 유럽 및 동유럽		21	5.1%	52	4.8%	72	4.9%	223	2.0%
러시아	19	2	45.8%	24	13.1%	26	14.8%	182	1.3%
남동 아시아		231	-0.4%	139	13.0%	369	4.2%	102	3.0%
중국	4	141	-0.2%	104	13.6%	246	5.2%	179	3.0%
인도	14	53	-6.9%	13	10.2%	66	-3.9%	53	4.0%
중동 및 중앙아시아		10	1.9%	31	4.8%	41	3.9%	124	1.3%
아랍에미레이트	43	1	12.2%	6	9.0%	7	9.6%	1464	2.0%
아프리카		50	13.8%	22	-1.0%	72	10.5%	67	3.6%
전세계	2621	2.3%	1992	2.6%	4613	2.4%	656	6.5%	

주석 : * 일플레이션 을 감안한 실질가치 기준으로 작성

보험침투율 = GDP 대비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보험밀도 = 인구당 수입보험료 규모

출처: 감독 기관과 보험 협회 발표 최종 및 잠정 수치
 경제리서치 & 컨설팅(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예상수치.

지역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1962-2023)



출처 : 스위스 재보험 경제리서치 & 컨설팅(Economic Research & Consulting)